

# 통일을 향한 여러 갈래 길

전문서 · 수필집 · 사전 · 어린이 책까지 다양하게 선보여

통일의 염원을 담은 책(출판저널 245호 책으로 여는 통일시대 특집기사 참조)이 잇따라 출간되고 있다. 정부의 '햇볕정책'과 금강산 관광실행 등에 따라 전문서부터 수필집 · 사전 · 어린이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선보이고 있다. 최근에 발간된 책은 북한을 직접 다녀온 사람들이 '북한 바로 알기'를 주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북한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전하는 책은 바로 민족통일의 길을 닦는 초석이 될 것이다.

북한을 다녀온 문인들이 펴낸 두권의 북한순례기가 우선 눈길을 끈다. 소설가 이호철의 《이호철의 한살림 통일론》(정우사)과 시인 고은의 《산하여 나의 산하여》(중앙M&B)가 그것. 《이호철...》은 '한집안 살림살이'를 통일논제의 기본골격으로 삼고, 북한을 순례하며 느낀 체험을 빌어 21세기 남북이 나아갈 통일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 북한 산천 더듬으며 통일 염원

그는 "통일이 별 것입니까? 남북한 민중간에 '한살림'을 먹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통일의 시작"이라고 역설한다. 소설가답게 다소 추상적인 주장을 내세우지만, 사심 없는 만남이 통일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게 해준다. 《산하여...》 역시 직접 목도한 북한의 자연경관을 중심으로 소개하면서 허리 잘린 산하의 이쁨을 상기하고 있다. 금강산 · 백두산을 비롯해 북한의 산천 구석구석을 더듬는 것 자체가 북한 바로알기로 이끄는 자료가 되는 셈이다. 두권의 책은 민족정신에 호소하는 대승적 통일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북한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전하는 것만으로도 의의가 있다.

북한의 현실을 좀더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책으로 《통일로 가는 길이 달라진다》(오름)과 《이동북의 미로찾기—통일의 숲길을 열어가며(1·2)》(삶과꿈), 그리고 《결에서 본 김정일》(토지) 등을 꼽을 수 있다. 《라성일보》(LA) 발행인 조재길의 《통일로...》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 즉 미국 · 일본 · 중국 · 러시아의 힘의 역학관계를 중심으로 통일이론을 설교하고 있다. 저자는 통일한국을 이루기 위해 무엇보다 '민족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오랫동안 정부의 통일정책

에 관여한 국회의원 이동북 위원의 《이동북의...》는 통일을 위해 북한과 새로운 '합의문'을 논의하는 것보다 기왕의 합의문을 이행할 때까지 의연하게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다분히 정치적 입장을 담았지만, 분단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두 개의 주권국가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을 역설한다. 중앙일보 정창현 전문기자의 《결에서...》은 실제 북한정권을 장악한 김정일을 바로 아는 것이 북한 바로 알기의 지름길임을 강조한다. 북한의 대남사업부 부부장을 지낸 신경완 등 김정일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본 탈북 · 망명자의 증언까지 가감없이 전하고 있다. 한편 고려대 신일철 명예교수는 《평양의 봄은 오는가》(시사영어사)를 통해 북한의 실상과 집권자의 독재주의적 사상노선을 비판하며, 북한이 개생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북한체제가 붕괴 또는 고사의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개방을 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며 대북 포용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통일시대를 예견한 전문서로 경기대 박명서 교수의 《통일시대의 북한학 강의》(돌베개)와 이화여대 홍순호 · 박준영 · 함인희 교수의 공저 《북한 인식과 한반도》(살림) 등은 더욱 구체적이다. 《통일시대의...》는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조성 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통일 이후 우리 사회의 변화된 모습을 미리 점검한다. '통일세대를 위한 교실'이란 부제를 달고 있는 《북한...》는 한반도 문제를 사회과학적 시선으로 고찰한 것으로, 해방의 진정한 의미부터 통일 논의를 둘러싼 길항관계, 그리고 국내외의 다양한 시각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를 둘러싼 최악의 핵전쟁 시나리오를 보여 주는 《북한 핵 · 미사일 전쟁》(서문당)과 북한의 개정 헌법 이후 정치 · 경제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 《김정일 시대의 북한 정치 경제》(유문문화사), 그리고 정부의 통일정책을 분석한 《DJ 햇볕 경제전쟁에 간하다》(하나로) 등도 선보였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역은 《한반도, 운명에 관한 보고서》(김영사, 서재경 옮김)는 제2차 한국전쟁의 위기로 치닫던 북한 핵협상의 전망을 치밀하게 분석하며 한반도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를 묻고 있다.



북한의 유행가요 《휘피람》에 맞춰 북한 젊은이들과 함께 춤을 추는 시인 고은씨. 《산하여 나의 산하여》 중.

한편, 북한의 현실을 언어로 보여주는 사전 류도 몇가지 선보였다. 연합뉴스가 펴낸 《북한용어 400선집》과 국가정보원의 《북한용어 영문표기집》, 그리고 예림당이 펴낸 《어린이 용사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언어를 통해 북한의 현실을 보여주는 한편, 민족 동질성 회복의 원류를 언어통일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 어린이에게도 통일관

북한 바로 알기와 통일 이후 우리사회의 변화에 대한 정보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 특히 어린이에게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최근에 북한의 동화를 모은 《뽕이네 꽃밭》(우리교육)은 북한에 사는 '동무'들이 읽는 책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며, 나아가 남북한 교류단절에 따른 언어의 이질

화 현상을 보여준다. 대교에서 펴낸 《뽕단지 북한탐방》(박영규)과 한국어린이교육연구원의 《통일을 꿈꾸는 아이들의 북한여행》(정영애) 등도 북한에 대한 어린이의 호기심을 채워준다.

한편, 지난해 후반기에 나온 《평양 아이들은 우예 사노》(한뿔)와 《통일로 가는 길》(한국문원) 등은 북한 어린이의 삶과 꿈을 보여주는 정보서. 특히 《평양...》은 북한에서 망명한 윤웅씨가 직접 겪은 체험을 바탕으로 썼기 때문에 사실감이 돋보인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북한체제의 기본 골격에서부터 교육 · 언어 · 종교 · 사회생활 등의 정보를 쉽게 풀어써 장차 민족통일의 동량으로 자라날 어린이를 위한 지침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오완진 기자

## 학제의 출간

### 번역서 전문서평지 《미메시스》 창간

외국문학 전문출판사인 열린책들이 번역서 전문서평지 연간 《미메시스—번역서 가이드북 1999》를 펴냈다. 창간사는 단 두마디. "서평은 많을수록 좋다. 가치있는 책의 번역은 많을수록 좋다" 중역 · 약역 · 오역 · 줄역 등 번역출판의 파행적 번역문화에 대한 반성과 엄정한 번역 서평문화의 정착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간결한 문구에 담았다. 제호 '미메시스(mimesis)'는 번역과 원본, 책과 사회, 번역과 시대에 대한 얽힘을 담론의 핵으로 삼겠다는 의도다.

창간호 특집으로 '번역과 번역가'에 대한 전

문번역가 김화영 · 이윤기 · 김석희씨 등의 번역론, '문학의 세계화', '정신분석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출판인들이 뽑은 한국을 대표하는 번역가들'을 실었다. 김화영 교수는 번역은 텍스트의 약호풀이이자 약호조립과정이라고 정의한다. 소설가 이윤기는 'A little learning is a dangerous thing'이란 영국 속담을 '선무당이 사람잡는다'로 옮길 수 있어야 한다고 충고한다.



우리나라 으뜸가는 번역자로 꼽힌 이윤기씨.